『영주어문』 제20집(2010. 8) 119-144쪽

『松溪漫錄』의 異本과 그 자료적 가치

문 정 우*

차 례

1. 머리말
2. 『松溪漫錄』의 내용적 특성
  2.1. 學唐 과정의 과도기적 詩壇 반영
  2.2. 立德을 지향한 松溪의 人品 투영
3. 『松溪漫錄』의 異本과 그 자료적 가치
  3.1. 『松溪集』본의 편집방향과 의의
  3.2. 『大東野乘』본과 『寒皐觀外史』본의 가치
4. 맺음말

1. 머리말

『松溪漫錄』은 松溪 權應仁(1517 - ?)이 詩話와 野談을 겸하여 저술한 것이다. 『송계만록』의 내용과 『송계만록』에 나타난 비평의식은 孫在壽와 李明淑의 논문에 잘 드러나 있다. 손재수는 『송계만록』에 나타난 비평의식과 함께 『송계만록』이 수록된 야사총서류를 조사하였고, 『大東稗林』, 『大東野乘』, 『松溪集』이라는 세 가지 이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거론 인물과 인용된 시, 詩評의 유무, 이본간의 글자 출입과 내용

* 경상대학교 강사. jungwookr@hanmail.net

의 첨입과 삭제 등을 도표로 정리하였다.[1] 이명숙은 『송계만록』의 詩論 양상과 비평의식을 고찰하였다.[2]

본고는 『송계만록』에 나타난 비평의식 등을 고찰하기 이전에 선행 검토의 필요성이 절실한 『송계만록』 이본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송계만록』 이본간의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 규명을 하여 각 이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송계만록』은 크게 『대동야승』본, 『송계집』본, 『寒皐觀外史』본으로 정리된다. 이들 이본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게 된 원인과 기사의 삭제와 첨입에 나타난 의미를 살펴보고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각 이본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본의 특성에 나타난 자료적 의의와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것을 검토하기 이전에 『송계만록』의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며 詩話史의 한 국면과 송계에 대한 傳記的 측면에 대해 논의를 하여 『송계만록』의 내용적 의의를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2. 『송계만록』의 내용적 특성

『송계만록』은 上, 下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권은 대체로 시화이고 하권은 야담이다. 상권에는 瀣纓 金馹孫(1464-1498)의 詩 소개에서부터 드러나지 않은 인물의 시, 훌륭한 인품에 뛰어난 시를 지은 예, 선비들이 기생에게 시를 주면서 얽힌 이야기, 遠接하는 가운데 중국 사신과 시를 주고받은 사정, 당시 새로운 詩風을 시도한 이들에 관한 이야기, 호평을 받는 시에 대한 송계의 독자적인 견해 등 다양한 시화를 싣고 있다.

하권은 주로 시를 제외한 야담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孟子』에 나오는

1) 孫在壽, 「松溪 權應仁의 生涯와 批評意識」,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1995.
2) 李明淑, 「權應仁의 詩論과 批評意識」,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7.

'折枝'의 뜻풀이에서부터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과 탐학한 선비들의 행태, 역사의 뒷이야기, 분수를 지키고자 하는 송계 자신의 모습 등을 싣고 있다. 간혹 시에 관한 이야기도 싣고 있는데 대체로 시의 본문은 기록하지 않고 시에 얽힌 이야기들, 詩語에 관한 풀이 등을 하고 있다. 『송계만록』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체제와 내용을 검토하여 송계의 비평의식에 대해 분석을 해 놓았다. 여기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學唐 과정의 과도기적 詩壇 반영

먼저 송계 비평의 한 국면을 통해 16세기 詩壇의 현실을 엿보는 데서 『송계만록』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고려시대에는 대부분의 문인들이 蘇軾(1036-1101)을 숭상하였다. 그러나 과거 급제를 위해서는 한시 작법에 얽매였고, 과거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당시에 유행하던 소식의 시를 익힐 수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성종 때 杜甫(712-770)의 詩를 諺解함으로써 杜詩와 盛唐에 대한 관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으나 번성하지는 못하였다. 조선 초기의 시화를 살펴보면 아직은 두시나 성당의 기풍을 얻었다는 비평이 드물다. 한시의 지향점이 두시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두시를 체득한 사람도 드물거니와 두시를 이해하여 평을 가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의 시단은 아직 바로 두시를 배우기보다는 고려시대의 소식을 배우자는 學蘇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리고 소식을 배워 宋詩다운 시를 구현하고자 했던 黃庭堅(1045-1105)을 위시한 江西詩派의 영향을 일부 제기할 수 있다. 역시 송시의 기틀이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조선 초기 이래 주조를 이루던 소식 · 黃庭堅(1045-1105) 추구의 시풍에 회의적이고 대신 唐詩를 학습하려는 복고적 경향이 출연하였다.[3] 조선 중기의 시화인 『晴窓軟談』, 『芝峰類說』, 『於于

野談』, 『惺叟詩話』, 『霽湖詩話』 등에서는 三唐派 시인들을 비롯하여 성당의 풍격이나 두보의 기풍이 있는 시인들을 대거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송계 또한 당시를 배우는 분위기 속에서 성당풍에 근접한 시를 창작해낸 시인들의 작품을 愛玩하고 있다.

> 思菴 朴政丞이 젊었을 때 僧房에 자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 朴相國의 시는 李白에게서 나왔는데 淸新俊逸하여 세상에 전하는 것이 매우 많다.[4]

> 沈相公의 시는 평담하고 난숙하여 조탁한 흔적이 없고, 白香山의 기풍이 있다.[5]

> 蘇齋 상국의 시는 오로지 두보를 배워 순정하고 전아하다.[6]

우리나라 시인들과 성당시대의 시인들을 대비시켜 작품의 특징을 언급하고 역시 시는 성당이라는 한시 창작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창작의 이상은 이러했지만 시단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시를 잘 지었다고 하는 白湖 林悌(1549-1587)에게서도 杜牧(803-853)을 배운 점이 발견되고,[7] 대제학을 지낸 바 있는 湖陰 鄭士龍(1491-1570)은 李商隱이 한 것처럼 잘 쓰이지 않는 고사를 뽑아 글을 지을 일이 있을 때마다 지니고 다녔으며,[8] 이상은의 시를 모방하기도 하였다.[9]

그러므로 송계는 다음과 같이 당시 시단을 비평하였다.

---

3) 안대회, 『조선후기 시화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5년, 21쪽.
4) 『국역 대동야승』 「松溪漫錄」 上 35항 "思菴朴政丞少時宿僧房有詩云 … 相國之詩出於李白 淸新俊逸 傳世者甚衆"
5) 『국역 대동야승』 「松溪漫錄」 上 58항 "沈相公之詩平澹爛熟 無斧鑿痕 有香山氣習"
6) 『국역 대동야승』 「松溪漫錄」 下 9항 "蘇齋相國之詩 專學老杜 純正典雅"
7) 許捲洙, 尹浩鎭 『譯註 詩話叢林』 上 「晴窓軟談」 까치동양학, 1993, 382쪽.
8) 許捲洙, 尹浩鎭 譯註, 앞의 책 下, 17쪽.
9) 許捲洙, 尹浩鎭 譯註, 앞의 책 下, 61쪽.

> 지금의 시학은 오로지 만당을 숭상하고 소동파 시를 버려두고 있다. … 동파 시에 이른바, … 風花는 長春苑에 잘못 날아들고 구름 낀 달은 不夜城에 한참을 닿아있네. 라고 한 것들이 만당시 가운데 이 시의 奇絶한 것과 겨룰 만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고려시대에 과거의 방이 붙을 때마다 33인의 동파가 나왔다 하였다. 고려의 문장은 본조보다 우수한데, 그때 온 세상이 동파를 사종으로 삼았으니 동파시를 낮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만약 그 사람됨을 가볍게 본 때문이라면 만당대의 시인은 소동파보다 나은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오직 退溪 상공은 동파시를 즐겨 읽었다.[10]

위의 단락에 대해 손재수는 송계가 소식을 숭상한 점은 문예의 형식논리를 중시하는 강서시파의 영향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였다.[11] 이명숙은 소식의 시를 폄하하는 문인들을 비판한 것이라고 하였다.[12] 필자는 위 인용문의 지금의 시학이 오직 만당을 숭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만당의 시와 소식의 시를 비교한 점을 두고 16세기 시단의 이상과 현실을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송계는 성당의 시를 애완하고 이상적인 시의 품격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요원한 일이었으므로 송계는 만당을 숭상하느니 차라리 소식을 배우라고 한다.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에 치중하여 현학의 도구로 삼느니 고려의 동파 애호는 이유 있는 추숭이므로 조선은 동파를 결코 낮춰보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송계는 이러한 자신의 논리에 퇴계 李滉(1501-1570)을 끌어다가 입론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미약한 신분의 자신이 백번 강조하는 것보다 퇴계의 讀詩 장면을 보여주는 게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

10)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下 10항 "今世詩學 專尙晩唐 閣東蘇詩 … 坡詩所謂 … 風花誤入長春苑 雲月長臨不夜城 不知晩堂詩中 有敵此奇絶者乎 高麗時每榜云三十三東坡出矣 麗代文章優於我朝 而擧世師宗 則坡詩不可謂之卑也 若薄其爲人 則晩唐詩人賢於蘇者 幾何人耶 唯退溪相公好讀坡詩"

11) 孫在壽, 앞의 논문, 86-88쪽.

12) 李明淑, 앞의 논문, 83쪽.

이처럼 송계가 진력하여 소식을 숭상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시단에 만연해 있는 만당풍과 관련 있는 것이다. 소식의 시가 목표 지점이 아니다. 시의 高峰은 盛唐의 시이고 最高峰은 역시 두보의 시이다. 唐詩, 唐詩라고 외쳐대기만 하면 오히려 유미주의 만당으로 흐르므로 최고봉에 오르기 위해서는 소식의 시를 통하여 入山하라는 말이다. 宋詩를 통해 唐詩를 배우는 것은 시인의 학습방법인데, 송계는 當時 시단의 실제 상황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학습방법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요컨대, 실제 시단의 현장에서 당시풍이 일어나긴 하였지만 성당으로 가지 못하고 언어의 조탁과 전고의 사용에 치중한 만당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송시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당시를 추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므로 야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한한 정감의 울림을 추구하는 당시를 노래한다는 것이 자칫 추상적이고 모호한 어구의 나열이 될 수 있으므로 송계는 송시를 통하여 탐미적이거나 의미 불통의 폐해에서 벗어날 것을 재삼 강조한 것이다.

『송계만록』은 점차 성당시를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인 군단에 비춰본다면 성당풍은 여전히 微風에 불과하다. 즉 만당의 유미주의가 지배적이며 송시풍이 산견되는 가운데 일부 시인들이 성당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삼당파 시인들이나 성당풍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만당풍이 만연하고 송시의 시풍을 떨쳐내지 못한 속에서 일궈낸 커다란 성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 국면이 『송계만록』이라는 자료 속에 드러나고 있다.

2.2. 立德을 지향한 松溪의 人品 투영

또 하나 『송계만록』의 중요성은 송계에 대한 자료와 송계에 대한 후대

의 평가가 미미하므로 송계라는 인물을 조명해 보는 자료로서의 가치에 있다.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송계의 비평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서는 『송계만록』을 통하여 송계의 내면과 송계의 사람됨을 살펴보고자 한다. 송계는 『송계만록』에서 도학자들의 시가를 높이 평가하여 인격과 시학의 수준을 일원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有德者必有言의 문예비평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면서[13] 송계의 삶의 태도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송계만록』의 세태와 현실비판을 살펴보면 인격도야와 덕업을 쌓고자 하는 평소의 소신이 드러난다. 송계는 문장과 함께 도의도 가지고 있어서 당시의 여러 노선생 거경들로부터 추중 받았다[14]는 말은 평소의 行誼가 드러난 평가라고 하겠다. 이렇게 입덕을 지향한 송계의 인품을 더듬어볼 수 있는 『송계만록』의 기사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의 항목들에서는 송계가 공정한 의론에 입각하여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자 한 일면이 보인다. 容齋 李荇(1478-1534)의 「詠諸葛武侯」에 "사생을 나라에 허하여 힘을 다했는데, 성패로 사람을 논하는 것은 어린애이지"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의론이 공정하고 글도 새롭다'고 하였다.[15]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결과는 있을 수 없다. 과정과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만 옳은 것이지 나쁜 결과 때문에 애쓴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든지, 좋은 결과 때문에 나쁜 과정이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미 전달이다.

篠叢 洪裕孫(1431-1529) 한 사람을 두고 秋江 南孝溫(1454-1492)과 大觀齋 沈義(1475 - ?)의 시각이 아주 다름을 지적하였다.[16] 자신의 입장과

---

13) 孫在壽, 앞의 논문, 85-86쪽.

14) 『松溪集』 권7 附錄 下, 都禹瑭 「傳」, "公有文章道義 當時諸老先生名公鉅卿 皆推重之"

15) 『국역 대동야승』 「松溪漫錄」 上 11항 "李政丞容齋先生 詠諸葛武侯詩 死生許國無遺力 成敗論人是小兒 議論公正 詞語亦新"

취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정한 의론을 상실한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다. 아무개가 아무개를 평한다고 할 때도 그 사람의 의견에 치우치지 말고 바른 인품인지를 따져보기를 당부하고 있다.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이 『東文選』이 私情을 따라 공정함을 잃었다 하여 『東文粹』를 편찬하였으나 『동문수』 속에는 아주 뛰어난 작품이 아닌데도 점필재 선대부의 작품이 실려 있음을 지적하였다.[17] 시대를 대표하는 선비로서 더군다나 공정함을 표방하고 편찬한 책마저 이러하다면 凡人들이 사정에 얽매이는 것은 어찌하겠는가? 위의 예시들은 인간세상에서 겪게 되는 빈번한 偏頗性에 빗대어 세상만사 세태를 한탄한 것이다.

송계의 시는 온아하고 충담한 맛이 느껴진다고 하였다.[18] 그것은 애써 울분을 참거나 신분차별에 따른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문학을 하는 데로 전념하고 즐긴 까닭이다.[19] 오히려 분수 밖의 것을 구하여 분에 넘치는 것을 경계하였다.

송염은 이조참의였을 때 금대를 잘못 띠고 들어갔다가 급히 은대를 빌려 띠고 들어가 경상감사로 승진되었고,[20] 直講 金澗이란 사람은 남의 운명은 잘 헤아렸으나 자신이 화를 피하는 데는 어두워 마침내 매를 맞아 죽었다[21]고 하였다. 靜庵 趙光祖(1482-1519)가 사사당할 때 金吾郎직을

---

16)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下 37항 "生員洪裕孫之爲人 世之追美者衆 而南秋江則贊之 沈大觀則短之 一裕孫也而毁譽殊絶 … 秋江豈欺人者 斷以此人之言爲信 是知人必可信 然後人亦信之也"

17)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下 35 "佔畢齋先生 以東文選徇私不公 擇焉而不精 淘沙揀金 更拔其尤 文曰東文粹 詩曰靑邱風雅 可謂極精矣 然其先大夫之作 非超群拔萃而亦在選中 可謂公無私者乎"

18) 『松溪集』 권7 附錄 下, 都禹瑞 「傳」, "讀松溪之詩 溫雅忠澹 恬靜寡慾之趣 安分樂志之情 溢於吟咏 其性情之養 亦可以見矣"

19) 文龍釘, 「松溪 權應仁의 漢詩 硏究」,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1998, 35-40쪽.

20)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28항 "宋宰相念甫爲吏曹參議 … 誤着金帶 至於闕庭曙色漸明 始知其金也 入忠義衛聽 更著他帶 是日陞拜慶尙監司"

21)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下 30항 "鄭宰相萬鍾甫語僕曰 余爲左承旨時 行于掌苑署墻外 有一官避人道傍人家 望見之乃金直講澗也 引坐一堂俾算吾命 … 其爲推算

맡았던 柳渰이 다그치자 조광조가 탄식하였는데 10여 년 뒤 유엄의 아들이 비명에 죽었다.[22] 이러한 예들은 모두 분수를 지킬 것과 분수 밖의 일을 구하지 않을 것, 그리고 천도를 거스르지 말고 순응할 것을 제시하는 글이다.

이러한 일화들을 기록한 것은 가장 생생한 교훈은 실제의 일상생활이란 것이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교훈을 일반 사람들은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욕망으로 가리워져 헤아리지 못한다고 보았다. 남에게 깨우쳐 주고자 한 것이면서 자신이 교훈으로 삼은 바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송계만록』을 통해 송계가 입덕 지향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松溪漫錄』의 이본과 그 자료적 가치

『송계만록』이 수록되어 있는 야사총서의 목록은 孫在壽의 논문에 표로 정리되어 있다. 아울러 『송계만록』의 가장 많은 항목을 수록한 『大東稗林』을 기준으로 『大東野乘』본, 『松溪集』본에 대해 각 항목마다 이본간의 글자출입, 항목의 첨입과 삭제 등을 도표화하였다.[23] 아래에서는 각 이본의 차이점을 통해 각 이본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의의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송계만록』은 『송계집』에 수록된 것과 『대동야승』 편찬자들이 필사하여 전해지는 본, 金鑢(1766-1822)의 『寒皐觀外史』에 수록된 세 가지 이본으로 정리된다. 『대동패림』을 편찬한 沈魯崇(1762-1837)이나 『패림』을 轉寫한

極妙云 然金公昧於避禍 終被考訊而斃"

22) 『국역 대동야승』 「松溪漫錄」 下 32항 "趙靜菴文正公之賜死也 金吾郎柳渰有迫促之意 公噓唏而嘆曰 古人有抱詔書伏哭傳舍者 何其異耶 … 過十餘年柳之子 橫罹門禍 非命而終"

23) 孫在壽, 앞의 논문, 65-75쪽.

자들은 김려의 『한고관외사』나 『倉可樓外史』의 계통을 밟아 전사하였으며,[24] 특히 김려는 善本을 구하고 충실하게 校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수록된 저술마다 題後文까지 부기하고 있다.[25] 그러므로 여기서는 『송계집』, 『대동야승』 외에 전해지는 『송계만록』에 대해서는 김려의 『한고관외사』를 대표 底本으로 삼는다.

3.1. 『송계집』본의 편집방향과 의의

『송계집』본은 항목의 순서에 있어서 나머지 두 이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대동야승』본과 『한고관외사』본은 항목의 순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대동야승』본은 상권에 있어 67항목까지 있고, 『한고관외사』본은 77항목까지 있다. 10개의 항목이 차이가 난다. 하권은 두 저본이 모두 63항목까지 있다.

『송계집』을 간행할 때 간행의 주체가 된 都禹璟(1755-1813)은 송계의 율시 가운데 6-7수와 『송계만록』의 10여 개 항목은 大音에 방해됨이 있을까 두려워 채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면 『송계집』본이 어떠한 편집을 거쳤고 그 의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여러 선비들이 기생에게 시를 건네며 잊지 못하는 사연들이다. 다음 항목들은 『대동야승』본에 있지만 『송계집』본에는 삭제된 경우이다.

上-⑥ 姜 晉川 渾이 星州 기생 銀臺仙에게 깊이 정이 들어 絶句 三章을 지어주었다.[26]

---

24) 安大會, 「『稗林』과 조선후기 野史叢書의 발달」, 『남명학연구』 제20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5, 299쪽.

25) 安大會, 「金鑢의 野史 정리와 寒皐觀外史의 가치」, 『문헌과 해석』 통권30호, 문헌과해석사, 2007, 146-150쪽.

上-㉞ 宋頤菴이 西原 기생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주었다.[27]

下-㊶ 平壤 기생 武貞介는 判書 柳辰仝의 사랑을 받았다.[28]

下-㊷ 성주 기생 映山紅은 일찍 제 뜻에 만족했던 사람을 말하면서 오직 秀才 李繼悅이 제일이라 하였다.[29]

下-㊸ 어느 內禁衛가 조정 관원의 사랑하는 기생을 奸通하였다.[30]

그러나 상권의 ㊼과 하권의 ㊾ 항목은 기생과 관련되어 있지만 수록하고 있다.

上-㊼ 晉城에 勝二喬라는 기생이 있었다. 어릴 때 이름은 億春이었으며 馬官 金仁甲군이 사랑하였다. 그에게 시를 가르치니 천성이 매우 영리하여 자못 시어를 이해하였다. 작품도 간혹 맑고 고운 것이 있었다. … 이와 같은 작품을 살펴보면 매우 離騷의 운치가 있다.[31]

下-㊾ 翰林 高景軫공이 역시 雪梅香에게 정이 들었다가 눈물이 蔡世英공보다 작지 않았다. 신유년에 한림 朴希立이 曝曬官으로 왔었는데 떠날 즈음 내가 시를 지어주기를, "떠나는 길 두 줄기 흐르는 눈물 괴이히 여기지 말것이, 蔡史와 高君이 모범이네"하니, 박한림이 크게 웃었다.[32]

위의 인용문 다섯 개의 항목을 삭제하고 상권의 ㊼과 하권의 ㊾ 항목

---

26)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上 6항 "姜晉川渾甫 鍾情於星州妓銀臺仙 贈之以 絶"

27)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上 34항 "宋頤菴贈西原妓詩曰"

28)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下 61항 "平壤妓武貞介 爲柳判書辰仝甫所幸"

29)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下 62항 "星州妓映山紅 嘗論其可意者 惟李秀才繼悅 爲首"

30)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下 63항 "有一內禁衛 私奸朝士愛妓"

31)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上 67항 "晉城有妓勝二喬者 小名億春 爲馬官金君仁甲所幸 誨之以詩 性甚慧黠 頗解詩語 所作間有淸麗 … 觀此等作大有騷韻"

32)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下 59항 "高翰林景軫公亦鍾愛於雪梅香 淚之大不下於蔡 辛酉年朴翰林希立 循例而來 臨別僕贈之以詩曰 臨岐莫怪雙淚垂 蔡史高君是伐柯 翰林大笑"

을 수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송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 기생과 관련되어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생과 선비간의 緣分이 일반적인 이야기다. 송계도 그러한 연분들을 들려주고 있다. 송계와 관련이 없는 일개의 사실이거나 일회적으로 소비하는 이야깃거리일 뿐이다. 따라서 송계에게 있어서도 큰 의미가 없어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여긴 듯하다.

하권의 59항목도 기생과 연분이 난 사소한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 實名까지 언급되어 있어 송계 생애의 중요한 면모를 드러내주는 傳記的 자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내용은 여러 포쇄관들과 기생의 연분이다. 포쇄관은 藝文館 소속 일종의 史官으로서 문서와 책을 다루는 직책이다. 송계는 바로 이러한 문인 관료들과 빈번한 접촉을 하였던 것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 송계는 庶孼 출신이다. 그러므로 사대부 양반 문인이라면 이러한 기록을 간과해도 무방하겠으나, 宦路가 닫혀 있는 서얼인 송계에게 있어서 문사들과의 접촉 기록은 그의 文力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文과 詩로써 消日했었던 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전기적 자료도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송계의 作詩에 드러난다. 송계는 시대와 어긋난 자신의 처지에 대해 鬱憤이 없다. 그러한 風貌가 드러난 것이 송계의 시이고 송계의 시에 대해 『송계집』「傳」에서는 "溫雅沖澹, 恬靜寡慾, 安分樂志"[33]로 요약하였다.[34] 낙천적으로 인생을 즐기는 송계의 삶의 태도가 포쇄관 박희립에게 주는 짧은 시에도 나타나 있다. 직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박희립이 기생과 헤어지려니 눈물이 떨어진다. 그런 그에게 시를 지어 주며 한바탕 놀려주니 울던 박희립이 大笑하였다. 『송계집』 편찬자들은 機智가 있고 재기발랄한 송계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포착할 수 있는 대목을

33) 『松溪集』 권7 附錄 下, 都禹瑞 「傳」, "讀松溪之詩 溫雅沖澹 恬靜寡慾之趣 安分樂志之情 溢於吟咏 其性情之養 亦可以見矣"

34) 文範鈺, 앞의 논문, 34-53쪽.

놓치지 않고 편집한 것이다. 요컨대, 송계 생애의 일면과 그의 文才, 資稟 등을 一瞥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選別한 것이다.

상권의 ⑥⑦항목은 승이교라는 기생의 詩才와 송계의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삭제되지 않았다. ⑥⑦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른 측면에서 논의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둘째, 야사총서류에 똑같이 실린 항목이라 할지라도 『송계집』본에서는 항목의 끝부분을 삭제한 경우가 있다.

> 上-⑥⑤ 중국에 羅萬湖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 … 구법이 원활하여 이른바 판자 위에 탄환 구르는 것 같다. 이것은 전해들은 것이고, 그의 작품을 많이 얻어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35]
>
> 上-⑥⑥ 여자로서 시를 잘 짓는 사람은 예로부터 드물다. … 두 시는 청신 원활하고 장하고 고와서 부인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닌 듯하여 매우 가상하다. 그는 趙 斯文 瑗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다.[36]
>
> 上-⑥⑦ 진성에 승이교라는 기생이 있었다. … 이와 같은 작품은 매우 離騷의 운치가 있다. 나이 30이 못되었으나 젊고도 聰敏하였다. 만약 스스로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옥봉 여도사와 같은 지경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37]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시를 인용하고 거기에 송계가 評語를 달았으며 끝에는 야담이 부기되어 있다. 『송계집』본에서는 밑줄 그은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야담 부분을 잘라내고 송계의 평어에서 단락을 끝맺은 것이다. 송계는 탁월한 창작 역량과 詩眼의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다.[38] 편찬자들

---

35)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上 65항 "中朝 有羅萬湖者 … 句法圓活 所謂板上走丸也 此乃傳聞者 以所作之不多得爲歎"

36)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上 66항 "女子之能詩者 自古罕有 … 二詩淸圓壯麗 似非出於婦人之手 甚可嘉也 或云 此則趙斯文瑗之幸姬"

37)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上 67항 "晉城有妓勝二喬者 … 觀此等作大有騷韻 而年未而立 少且聰敏 若不自畫 玉峯不難到也"

38) 孫在詵, 앞의 논문, 53-54쪽.

이 이와 같이 裁斷을 한 것을 보면 송계의 역량과 안목을 십분 고려한 것이다. 왜냐하면 만록이라는 것은 원래가 잡다한 내용을 그러모은 것이며, 독자는 또한 그러한 주변적인 이야기가 흥미로워 펼쳐보는 휴식으로 삼는 책이기도 하다. 그런 종류의 책에서 오히려 漫談을 삭제한 것은 송계의 평안이 돋보이도록 초점을 맞춘 편집이라고 보여진다.

셋째, 연결되어 있는 항목이 『송계집』본에서는 분리되어 있다.

> 上-㊺ 우리 東國에 武人으로 시에 능한 사람은 朴撝謙 이후로 적막하여 이름난 사람이 없다. 中廟朝에 中樞 李思曾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耽詩癖이 있었다. 함경 일도의 詩板 중에 椽亭이라 한 것이 그 사람이다. 그 시는 혹 볼만한 것이 있었다. // 근세에 咸陽郡에 한 武士가 있는데 성은 鄭이요, 이름은 陟이며 스스로 호를 竹溪라 한다. 그의 시에 "죽계의 늙은이는 벼슬을 마다하고 이 누각에 누웠으니 병골도 가벼워라 물새 한 울음에 산비도 멎을 시고 구름에 새어 나온 저녁 놀 반쯤 밝았더라" 하였다. 武人이라고 가벼이 볼 수 없다.[39]

『송계집』본에서는 빗금(//)을 경계로 줄바꿈을 하여 두 개의 항목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어서 上의 ㊸ 항목이 나온다.

> 上-㊸ 昌寧 사람 孫仁甲은 재주가 文武를 겸비하여 策文으로도 이름이 났고 무과에도 급제하였다. 본업은 솜씨 있는 기술로 버드나무도 뚫을 정도의 활솜씨이며 부업은 警句로 사람을 놀래킬 정도이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정자가 있었는데 醒이라 이름 붙이고 스스로 一律을 지었다. 손공이 그 운에 次韻하였는데 한 연에 이르기를, "차를 마시는 참맛은 깨끗하고 욕심 없는 데 있으며, 술을 마다하니 고상한 뜻이 아득하구나"라고 하였다. 그 끝 구절

39)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上 55항 "吾東國武弁之能詩者 朴撝謙以下 寂然無聞 中廟朝有李中樞思曾 有耽詩癖 咸鏡一路詩板中有曰 椽亭者卽其人 其詩或有可觀者也 // 近世咸陽郡有一武士 姓鄭名陟者 自號竹溪 其詩曰 竹溪窮老謝簪纓 臥着茲樓病骨輕 水鳥一聲山雨歇 漏雲殘照半邊明 未可以武弁輕之也"

> 에는 "밖으로는 스스로 정자에 이름 붙여 안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네"라고 하였다. 시어가 典實하고 이 밖에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 매우 많지만 벼슬은 겨우 五品에 올라 환로에서 비척거리는 것은 운명인가 보다. 그러나 뛰어난 재주는 다른 날에 반드시 펼쳐 보일 것을 알겠다.[40]

『송계만록』의 시문학 비평에서 두드러진 측면은 방외에 속하는 인물 및 여류·무인·천인들의 시를 많이 소개하고 재주를 높이 평가한 점이다. 그것은 곧 同類意識의 반영이다.[41] 위 인용문에 보이듯 송계는 으레 文壇과는 거리가 있는 무인이나 무사의 시문을 탐색하여 살뜰히 소개하고 있다. ㊺ 항목의 맨 끝 구절에 나오는 "武人이라고 가벼이 볼 수 없다."라는 문장을 "庶孼이라고 가벼이 볼 수 없다."라고 송계로 代置시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㊸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벼슬은 겨우 五品에 올라 환로에서 비척거리는 것은 운명인가 보다. 그러나 뛰어난 재주는 다른 날에 반드시 펼쳐 보일 것을 알겠다."라는 것을 "서얼 출신이라 벼슬에는 나아갈 수도 없어 인생에서 비척거리는 것은 운명인가 보다. 그러나 뛰어난 재주는 다른 날에 반드시 알아줄 이가 있을 것을 알겠다."라고 脚色을 해 보면 어떠한가? 이 항목들은 무인과 무사에 비춘 송계 자신의 넋두리 내지는 투정도 될 수 있다. 역시 송계답게 세상을 향한 원망은 접어두고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당연한 귀결을 기대하고 있다. 송계는 자신과 이들의 시문을 哀婉하는 것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송계집』 편찬자들은 바로 이러한 송계의 동류의식[42]을 감지하고 송계의 현실에 공감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무인과 무사의 대목에서 이어져 있

---

40) 『寒皐觀外史』「松溪漫錄」 上 73항 "昌寧人孫仁甲才兼文武 策名虎榜 本業則妙技穿楊 餘事則警句驚人者也 其家尊有亭曰醒 自題一律 孫公次其韻一聯云 啜茶眞味舍沖澹 辭體高情到杳冥 其尾句云 外自名亭內自銘 詩語典實 其它類此者甚衆 而官纔五品 蹭蹬於宦路者命也 然知其驥足必展於異日也"

41) 孫在壽, 앞의 논문, 91쪽.

42) 孫在壽, 앞의 논문, 91쪽.

는 항목을 나누어 여타의 記事들과 대등하게 부각시킨 것이다. 그리고 『대동야승』에 누락된 무인 손인갑의 기사를 곧 이어 삽입하여 同種의 내용을 통해 송계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게 해 놓았다.

넷째, 이본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산발되어 있는 것을 『송계집』본에서는 연이어 배치하고, 같은 주제에 대한 것은 연결해 놓았다.

上-㉑ 재상을 지낸 退休 蘇世讓이 嘉靖 癸巳 연간에 皇都에 갔다.[43]

上-㉙ 퇴휴 소상공이 義州 聚勝亭의 暉자 운을 차운하였다.[44]

上-㉗ 내가 지난 해 楊州 檜巖寺에 이르러 도문 십리 쯤 되는 길에서 한 벼슬아치가 平頂子를 쓰고 역마를 타고 가는 것을 마주치게 되었다. 말 앞의 隷卒 두 사람이 반짓고리를 끼고 길가는 것을 물리치길래 놀라 물으니 鍾城府使가 아내를 잃은 것이라고 한다. 그가 예법을 모르기는 하지만 근심을 만났으니 참아줄 만하다.[45]

下-㊹ 吳 宰相 謙이 南原 부사로 있을 때, 온 고을이 은혜를 품어 돌을 깎아 비를 세우고 떠난 뒤에 글을 써 넣으려고 하였다. 공이 듣고는 거짓말로 父老들에게 "나의 정치가 어찌 비석을 받을 수 있겠는가? 무릇 비의 글은 사적과 부합하여야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기 전에 쓰게 되면 내가 보아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비를 실어 오면 내가 친히 보겠다." 하니, 부로가 이 말을 믿고 그 말대로 하였다. 공이 부로들을 물리치고 석공에게 명하여 下馬 등 글자를 파서 향교 앞에 세웠다. 당시 사람들이 그를 체모 있다 하였다.[46]

---

43) 『寒皐觀外史』「松溪漫錄」 上 71항 "蘇退休相公世讓甫 嘉靖癸巳年間 赴皇都"

44)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上 19항 "退休蘇相公押義州聚勝亭暉字韻"

45) 『寒皐觀外史』「松溪漫錄」 上 77항 "僕昔年抵楊州檜巖寺 去都門十里許道 遇一官着平頂子 乘駬騎者 馬前隷卒二人 挾繩床披籠 以辟行路 愕然問之 乃鍾城府使之遭內艱者也 彼雖不知禮法 丁憂者是可忍乎"

46) 『국역 대동야승』「松溪漫錄」 下 44항 "吳宰相謙甫 出宰南原闔境啣恩 伐石作碑欲俟去日而書之 公聞之 紿父老曰 吾政何能當立碑 凡碑詞 與事迹相符 然後可以取信於人 迨我未去而寫之 則余可乎可 不可乎不可 汝等輿碑而來 親臨觀之 父老信之如其言 公聞父老命石工 刻下馬等字竪於鄕校前 時人以爲得體"

상권의 ⑦①, ⑲를 『송계집』본에서는 이어서 배치해놓았다. 퇴휴 소세양(1486-1562)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권의 ⑦⑦, ㊹는 예와 관련한 人間事를 역시 연이어 소개하고 있다.

『송계집』본 편찬자들은 기사를 검토해 흩어져 있는 유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독자가 연관성 있게 살펴보도록 하였다. 편집의 일차적 취지인 기본적인 정리 작업에 충실한 편집을 한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대목을 접하여 보더라도 『송계집』본은 잘 재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송계집』본은 선별과 재배치와 재단을 거친 精練된 刊本임을 알 수 있다. 편찬자들이 교감과 정리를 하면서 송계의 인물을 조명하고자 고심한 성과물인 것이다.

3.2. 『대동야승』본과 『한고관외사』본의 가치

『대동야승』본은 『한고관외사』본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한고관외사』본과 비교해 보면 『대동야승』본에는 『송계만록』上의 끝부분 10개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대동야승』 필사자들은 10개의 항목이 缺落된 것을 입수한 것이다. 자료의 양적 측면이라는 단순 대조 차원에서 『대동야승』본을 본다면 이 저본은 가치가 없겠지만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면 『대동야승』본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첫째, 『한고관외사』본의 가치를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대동야승』본과 『한고관외사』본을 비교함으로써 『한고관외사』본 자료의 양적 측면이 비로소 提高된다.

둘째, 『대동야승』본의 존재로 인해 『송계집』본과 『한고관외사』본의 대조가 의미가 있다. 『대동야승』본이 없었다면 『송계집』본은 단지 『한고관외사』본의 축소 정도로만 여겼을 것이다. 沈守慶(1516-1599)의 『遣閑雜錄』이나 李睟光(1563-1628)의 『芝峰類說』 등을 보더라도 『송계만록』이 언급

되어 있다.[47] 16-17세기에 언급되고 있는 『송계만록』이 『대동야승』본인지 19세기 『한고관외사』에 실리게 되는 저본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송계집』본과 『한고관외사』본의 대조를 통해 『송계만록』은 『송계집』 편찬 이전에 이미 하나의 저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송계만록』의 이본 연구에 『대동야승』본이 중요한 국면을 띠는 것이다.

그러므로 『송계집』 편찬자는 『한고관외사』에 필사되기 이전의 『대동야승』보다 풍부한 어떤 저본을 참고한 것이 된다. 즉 『송계집』본은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유행되고 있던 저본에서 순서를 바꾸고 필요한 것은 넣고 버릴 것은 버린 것이다.

어떤 저본이 『한고관외사』에 全載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고관외사』본 이외의 『송계만록』 기사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유행하고 있었던 그 저본이 『한고관외사』에 고스란히 담겨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요컨대, 두가지 이상의 판본이 전해 내려와 하나는 『대동야승』쪽에 하나는 『송계집』과 『한고관외사』에 각각 실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송계집』본에는 『대동야승』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고관외사』에는 수록된 10개의 항목 가운데 몇 개의 항목이 들어갈 수 있었다.

다음 『한고관외사』본의 가치는 여타의 저본 내용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점이다. 다른 이본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것은 가장 방대하고 풍부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고관외사』의 가치는 김려가 직접 주석을 달고 야사 수록 가운데 題後文을 붙여놓은 데 있다. 이 점은 『한고관외사』의 가치가 다른 야사총서류에 비견될 바 아니다.[48] 『한고관외사』본 가운데 먼저 주석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

47) 孫在壽, 앞의 논문, 65쪽.

48) 安大會, 「金鑲의 野史 정리와 寒皐觀外史의 가치」, 『문헌과 해석』 통권30호, 문헌과해석사, 2007, 146-155쪽.

上-⑫ 註 : 慕齋의 이름은 安國이다. // 안국의 자는 國卿, 義城人이다. 벼슬은 貳相에까지 이르렀고 시호는 文敬이다. 仁宗의 廟庭에 配享되었다.[49]

빗금(//)을 경계로 빗금 앞부분은 原註이고, 빗금 뒷부분이 김려가 첨가해 놓은 주석이다. 『대동야승』에는 記事에 나오는 인물들의 號가 쓰여진 경우 주석에서 이름을 밝혀놓았다. 김려는 인물의 자와 본관, 벼슬 등 기본적인 전기 자료를 더 첨가하는 정성을 들였다. 이 또한 『한고관외사』본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었다.

김려의 노고가 더욱 빛나는 것은 제후문이다.

송계 권응인은 參判 應昌의 庶弟이다. 문장에 능했는데 시를 잘 짓는다는 이름은 더욱 선비들 사이에서 우뚝하였다. 그가 지은 만록 두 편은 원래 시화에다가 紀事를 섞어 놓은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옛 사람의 저서는 風化와 敎育과 유관한 것인데 『慵齋叢話』에는 간혹 거칠고 비루한 말들이 있고, 宋世琳의 『禦眠楯』에는 음란한 표현과 외설스런 말이 글 가운데 넘치니 참으로 음란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어찌 風敎의 만분의 일에라도 도움이 되겠는가? 집어 던져 기록들을 거두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였다. 그의 논의가 참으로 옳지만 지금 자신이 쓴 것을 살펴보니 오히려 졸렬하고 비속함이 많다.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려움을 알겠다. 그러나 기록된 典例와 故事는 간혹 취할만한 것이 있다. 비유하자면 沙金을 일다가 조금 얻었다고 나머지마저 버린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옛 모습대로 잘 베껴서 두 권으로 만들어 外史氏에게 부친다.[50]

---

49) 『寒皐觀外史』「松溪漫錄」 上 12항 註"慕齋諱安國 // 安國字國卿 義城人 官貳相 謚文敬 配享仁宗廟庭"

50) 『寒皐觀外史』「題松溪漫錄卷後」"松溪權應仁參判應昌之庶弟也 能文章以善詩名益椒林中最翹楚者耳 其所著漫錄二篇 本以詩話參以紀事 其言曰 古人之著書者所以有關於風敎也 慵齋叢話間有麤鄙之說 宋斯文世琳之禦眠楯 淫辭褻語溢於書中 實誨淫者也 豈有補於風敎之萬一 投畀何錄可也 其論誠是矣 然今觀其自家所錄 猶多蹈麤鄙俚 信言之易 而踐之難也 然其所紀故實或有可取 譬如淘沙揀金 得寸亦寸棄之 可惜故依舊謄寫 釐爲二卷 付諸外史氏云"

위 인용문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얼이라는 신분상의 질곡을 지적하였다. 둘째, 사림들 사이에서 송계의 詩才는 단연 우뚝하다. 셋째, 시화와 기사가 섞인 『송계만록』의 성격 소개이다. 시화가 섞인 만록은 評眼 없이 서술하기 곤란한 장르임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송계의 詩的 성취는 절로 드러난다. 그리고 끝으로 『송계만록』을 입수한 원형대로 全載한 이유는 풍교에 유익한 성과가 미미할지라도 사금을 캔 듯 소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짧은 글속에 시인이자 평안의 소유자이면서 신분상의 제도에 묶여 불우했었던 송계를 간단한 필치로 피력해내었다. 김려는 그러한 송계를 만록을 통해 이해하는 한편 자료로서의 만록의 가치에 비중을 두었다. 이것은 김려가 『송계만록』을 필사하면서 송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후대에 송계와 『송계만록』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동야승』본과 대조하여 첨가된 10개 항목 가운데 특기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탁영 김일손의 시 두 수와 정승을 지낸 晩保堂 金壽童(1457-1512)의 시가 수록되어 있어 그들의 시를 감상해볼 수 있다.[51] "김일손의 문장과 朴誾(1479-1504)의 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다."[52]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김일손은 문장에 능하다고 일컬어져 시는 문에 가리워졌다. 그러나 탁영의 詩才는 송계의 평안에 포착되었다. 비록 시는 드물게 전해지고 있지만 시도 문에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김수동 역시 遯堂 申從濩(1456-1497)와 이름을 같이 할 정도라고 하였으나

51) 『寒皐觀外史』「松溪漫錄」 上 68항 "金濯纓次睡軒權先生詩云 晩泊沙汀葉葉舟 紛紛去馬與來牛 江山萬古只如此 人物一生長未休 西日已沈波渺渺 東流不盡思悠悠 停舟獨立嘯黃久 掠水飛回雙白鷗 又曰 付與浮生作鼠肝 榮華瞥眼等閑看 輸心莫道交情熟 失意休言世味酸 文字不隨餘子媚 林泉終卜此身安 多君骨鯁詞源激 宦海文瀾共渺漫", 上 70항 "政丞金文敬公壽童甫 游妙寂寺 詩曰 山色侵趺座 苔紋沒短碑 架巖蘭閣廻 跨澗石橋危 云云 文章簡古 筆法遒勁 與一時申學士從濩齊名 而其遺藁未得刊行于世 惜哉"

52) 許捲洙, 尹浩鎭 譯註, 앞의 책 下, 128쪽.

유고가 세상에 전해지지 못했으므로 시 한수를 들어 그의 이름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李明淑이 지적한 바 있듯 시의 點化에 대해 언급하여 점화의 실제 예시와 점화를 통한 새로운 느낌을 제시하였다.[53] 점화는 기존의 잘 알려진 어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새로운 의경을 만들어내는 작시 표현법이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본문보다 주석이 상세하다는 점이다. 본문에서는 재상과 아전이라고만 하였으나 주석에서는 각각 재상과 錄事 벼슬을 지낸 晩節堂 朴元亨(1411-1469), 朴處寬과 그의 아들 楸溪 朴孝孫(1431-1503)이라는 실명까지 언급하고 있다.[54] 주석이 더 상세한 야담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니 주석의 야담으로서의 확대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담에서 이러한 종류를 조사하여 특징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본다.

거창의 李翼淨라는 사람이 귀신과 사귀었는데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상해를 당할까봐 귀신을 쫓아내니 자신의 이름만 기억할 뿐 실성한 사람과 같았다는 일화를 싣고 있다. 귀신과 사귀고 있을 적에는 글 솜씨가 나날이 진보하고 즉석에서 글이 이루어져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송계가 이때의 작품들을 모아 『自然堂集』이라고 이름 붙이고 한권으로 수습하였다.[55] 일찍이 李奎報(1168-1241)가 詩魔의 존재

53) 李明淑, 앞의 논문, 57-61쪽.

54) 『寒皐觀外史』「松溪漫錄」上 69항, "[illegible]

55) 『寒皐觀外史』「松溪漫錄」上 74항, "居昌縣有李翼淨者 十六七歲時 道遇異衣童子 年可十二三 自稱海中仙子 相語大悅 夜歸朝來 動輒追後 自此李之文章 翰墨日益進 操筆立成 其所作幾千餘篇 而其時子甥輩 年皆幼稚 散亡殆盡 僕拾若干首合爲一卷 目爲自然堂集 此仙子之自號者也 如[illegible]

를 일컬어 시벽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였고, 蛟山 許筠(1569-1618)은 『惺叟詩話』에서 鄭百鍊이란 사람이 귀신을 만나 절구를 얻었는데 맑고 그윽하여 인간세상의 말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56] 귀신과 문학을 연결한 직접적인 예화를 들어 시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라는 것은 억지로 꾸미고 다듬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정이 배어나와 조탁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 뛰어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고관외사』본에 『대동야승』본과 대조하여 첨가된 10개 항목의 일부는 『송계집』본에 녹여 잘 편집되어 있다. 위에 언급한 10개 항목을 살펴보는 것은 송계와 『송계만록』을 이해하는 작은 통로이기도 하므로 그래서 一瞥의 가치가 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송계만록』의 이본을 검토하고 그 특성과 자료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송계만록』의 이본은 『대동야승』본, 『송계집』본, 『한고관외사』본으로 정리된다. 『송계집』본은 기생과 관련된 일부가 삭제되었다. 그 내용들은 송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개의 사실이거나 일회성의 소비적 이야기였다. 반면 기생에 관한 부분이 全載된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서얼출신인 송계의 전기적 자료가 부족

腹貯陽精 過屋高低滅復熒 莫向碧空風裡落 觀怡明日奏流星 贈兄詩云 文章得失正如棋 一敗寧無大勝時 莫訝月娥分桂盡 他年那欠贈兄枝 六言詩云 烟籠庭樹勻綠 雨過園桃嫩紅 門外靑山遠野 醉來高臥軒東 墻下叢筠嫩綠 山前躑躅層紅 主人醉裏淸興 明月三更出東 如此等作 似非鬼詩然詩不及文矣 其嚴親懼其爲魔所傷 驅逐萬方 泫然泣辭騰空而去 飛昇之際 人或有見其形者也 一自其後翼壽但粗記姓名 中年來學於余 常若失性者 聞其語記實如右云"

56) 許筬洙, 尹浩鎭 譯註, 앞의 책 下, 151쪽.

한 상황에서 송계가 문인 관료들과 빈번한 접촉을 했었다는 기록이 되는 자료였다. 또한 기생의 詩才에 대해 송계가 평가했을 때 송계의 비평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주고자 하는 경우였다. 『송계집』본은 송계의 시평이 있고 야담이 부기되어 있는 경우 야담을 잘라내어 시평을 돋보이게 하였다. 만록이라는 장르는 야담이 중요한 기사 거리임에도 야담을 삭제하고 시평에서 끝맺음을 한 것은 송계라는 인물 조명에 치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송계집』본은 송계의 동류의식을 반영하였다. 재능이 있지만 환로나 인생에서 순탄하지 못했던 인물에 대해 다른 이본에서는 집합적으로 연결해 놓은 기사를 『송계집』본에서는 분리함으로써 그 인물들의 비중을 높였다. 『송계집』본은 분산돼 있는 한 사람의 기사나 같은 주제에 대한 것을 나란히 배치하였다. 즉 『송계집』본은 정련된 간본이면서 송계의 생애와 특징을 조명하고자 노력한 성과물이었다.

『대동야승』본은 『한고관외사』본에 비해 상권 끝의 10개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10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순서가 일치한다. 『송계집』본에는 『대동야승』 본에 결락된 10개 항목의 일부가 첨입되어 있다. 이로써 본다면 『대동야승』 본에 실리게 되는 저본과 『한고관외사』본에 실리게 되는 적어도 두 종류의 저본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송계집』본은 두 종류의 저본에서 취사한 것이다. 『대동야승』본의 존재로 인해 『한고관외사』본이 풍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송계만록』이 두 종류 이상으로 유행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고관외사』본의 가치는 여타의 저본 내용을 모두 수용한 가장 방대하고 풍부한 원형이라는 점이다. 문장에 가리워진 김일손의 시적 성취를 드러내주었고, 유고가 전해지지 않은 김수동의 시 한수를 소개하여 시인으로서의 재능과 일실된 자료의 한 파편으로서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등 『송계만록』의 풍부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더구나 김려의 주석과 제후문을 통해 『송계만록』을 더욱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점도 중요

한 부분이었다.

요컨대, 송계의 일생과 내적 資稟에 대한 분석, 외부에서 송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하고 정리된 본을 보고 싶다면 『송계집』본을 참조하는 것이 좋고, 『송계만록』의 원형을 보려면 『한고관외사』본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본 연구는 주제 연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다. 특히 야사총서는 이본이 많아 정밀한 대교가 필요한 것이 많다. 『송계만록』만 하더라도 이본 연구 없이 일부가 번역되었다. 앞으로는 『송계만록』의 풍부한 모습이 번역되어 세상에 유통되기를 바란다.

● 핵심어: 『松溪漫錄』, 權應仁, 『松溪集』, 『大東野乘』, 『寒皐觀外史』

<참고 문헌>

1. 원전자료

權應仁, 『松溪集』, 道巖書院 刊行本, 1809.

金鑢, 『寒皐觀外史』 下,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총서, 2002.

『國譯 大東野乘』, 민족문화추진회, 1984.

2. 연구논저

文艶鈺, 「松溪 權應仁의 漢詩 硏究」,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1998, 34~53쪽.

孫在彦, 「松溪 權應仁의 生涯와 批評意識」,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1995, 53~88쪽.

安大會, 『朝鮮後期詩話史硏究』, 국학자료원, 1995, 21쪽.

安大會, 「『稗林』과 조선후기 野史叢書의 발달」, 『남명학연구』 제20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5, 299쪽.

安大會, 「金鑢의 野史 정리와 寒皐觀外史의 가치」, 『문헌과 해석』 통권30호, 문헌과해석사, 2007, 146~155쪽.

李明淑, 「權應仁의 詩論과 批評意識」,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7, 57~83쪽.

許捲洙 · 井浩鎭 譯註, 『譯註 詩話叢林』, 까치동양학, 1993.

<Abstract>

A Study on Different Versions and Value of 『Songgyemanrok』

Moon Jung-woo

『Songgyemanrok』 is a collection of poetry and historical tales created by Songgye Kweon, Eung-Ihn (1517- ?). 『Songgyemanrok』 is a valuable resource that portrays the ideal and reality of poetry in the 16th century and highlights the works of Songgye.

『Songgyemanrok』 has three alternative versions: what is included in 『Songgyejip』, what is in 『Daedongyaseung』, and what is in 『Hangogwanoesa』. 『Daedongyaseung』 version has the same arrangement of pieces with 『Hangogwanoesa』 version, but it lacks the last 10 pieces of the first volume. 『Songgyemanrok』 in 『Songgyejip』 is quite different from the other two versions as they were subjectively compiled by compilers. 『Hangogwanoesa』 version is similar to the original, whereas 『Songgyemanrok』 in 『Songgyejip』

The study of different versions must be done before the study of topics. it is hoped that various pieces in 『Songgyemanrok』 are interpreted and shared with the world.

• Key Words: 『Songgyemanrok』, Kweon Eung-Ihn, 『Songgyejip』, 『Daedongyaseung』, 『Hangogwanoesa』

* 이 논문은 2010년 7월 14일 투고되었고, 8월 1일 심사 완료되어 8월 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